데스크 시각

광주FC, 브래드퍼드에서 배우라

송 기 동
체육부장

지난 25일 새벽 벌어진 영국 프로축구 리그컵(캐피털원컵) 결승전은 많은 축구팬을 TV 앞으로 불러모았다. 프리미어리그 스완지 시티와 4부리그(리그 2) 브래드퍼드 시티의 대결은 결승 진출이 결정된 한 달 전부터 축구팬의 기대감을 한껏 고조시켰다.

아마추어의 감동 드라마

4부리그에 속한 브래드퍼드가 1부리그 강호들을 차례차례 연파하고 결승까지 진출하는 '칼레의 기적'을 일으켰기 때문이다. '칼레의 기적'은 1999~2000년 시즌 프랑스 축구 FA컵에서 4부리그 소속 칼레가 강호들을 잇달아 물리치고 결승에 올라 준우승을 차지한 것을 말한다.

이날 경기에서 브래드퍼드는 0 대 5로 대패했지만 8만여명의 관중들은 감동적인 드라마를 연출한 브래드퍼드 선수들의 '아름다운 도전'에 아낌없는 갈채를 보냈다. 각본없는 축구의 매력을 한껏 발산한 경기였다. 광주출신 기성용 선수가 스완지 선수들과 어울려 우승컵을 높이 들고 환호하는 모습도 감동적이었다.

지난해 1월엔 스페인 프로축구 3부리그 미란데스가 프리메라 리가 팀들을 잇따라 꺾고 국왕컵(코파 델 레이) 4강에 올랐다. 축구로만 먹고 살기 힘들어 낮에는 생업에 종사하고 퇴근 후에 모여 클럽 활동을 하는 3부리그 선수들이 1부리그 명문 비아레알과 에스파뇰을 꺾고 '4강 반란'을 일으킨 것이다.

프랑스 '칼레'가 당시 정원사, 교사, 부두 노동자 등으로 구성된 선수들로 기적을 쐈다면, 미란데스의 주전 스트라이커 파블로 인판테는 은행에서 대출상담을 맡고 퇴근 후에는 50km 떨어진 경기장에 가서 훈련을 하며 그라운드의 반란을 일으켰다. 브래드퍼드 스트라이커 제임스 핸슨 역시 슈퍼마켓에서 선반에 물건을 챙기는 일을 한다. 이처럼 그라운드에서 '기적'을 만든 이들 팀들은 대부분 축구를 무지 좋아하는 아마추어 선수들로 구성됐다는 공통 분모를 갖고 있다.

이제 광주 시민프로축구단(광주FC)으로 눈을 돌려보자. 광주FC는 지난해 2부리그로 강등된데 이어 최근 자기자본 잠식 등 방만한 운영을 한 것이 드러나 물의를 빚었다.

투명한 경영감시 나서야

최근 광주시 감사결과 광주FC는 지난 2010년 창단 이후 자본금 61억원을 사용했고, 지난해말 기준으로 5억6500만원을 차입해 자본잠식 상태인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이사회 승인도 없이 선수단 숙소와 업무용 차량을 구입하고, 월드컵 경기장 구내 매점 응찰에서도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을 쓴 것으로 나타나 광주FC 창단을 위한 주머니돈을 턴 코흘리개 고사리손을 비롯해 많은 주주(시민)들을 실망시켰다.

광주시는 이번 감사에서 관련자에 대한 주의 조치를 내리고 새로운 정관·사규 일제정비, 협동조합식 FC운영 형태 도입 등 중·장기발전을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자본금 잠식에 대한 개선책이 없는 등 여전히 근본적 대책을 못 내놓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올해도 예상수입(74억원)이 최초 자본금 61억원을 상회하지만 운영비 75억원을 사용하게 되면 또다시 자본금 잠식에 빠져들 악순환이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

이번 감사를 계기로 광주FC는 환골탈태(換骨奪胎)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무엇보다 투명한 경영감시와 관리감독이 철저히 이뤄져야 함은 물론이다. 내부 구단 프런트와 선수들의 혼연일체된 모습도 절실하다.

다행스럽게 광주FC 구단이 안팎으로 시달리는 동안 여범규 감독과 선수들은 겨우내 전지훈련을 통해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브래드퍼드가 이룬 '기적'은 비단 선수들뿐 아니라 홈팬들의 '애정어린' 응원에서 비롯된 한편의 드라마다. 브래드퍼드 선수들의 운동복에는 1985년 홈구장 화재로 인해 사망한 팬 56명을 기리는 '56'이라는 숫자와 함께 '영원히 함께'(always with us)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고환암 수술을 받고도 그라운드로 돌아와 골문을 지킨 브래드퍼드 골키퍼 매트 듀크의 '인간승리' 스토리는 경제난에 지친 많은 이들에게 힘을 줬다.

광주FC에 진정 필요한 것은 메시나 호날두와 같은 뛰어난 선수가 아니다. 광주FC의 진정한 '변화'가 시작될때 경기장을 떠난 광주 시민들의 애정역시 되살아 날 것이다.

오는 3월 2일 1부 K리그 클래식, 16일 2부 K리그가 각각 개막한다. 새로운 에너지를 충전한 광주FC의 선전과 함께 스피드 축구 '광(光) 축구'를 기대한다.

/song@kwangju.co.kr

옴부즈맨 칼럼

이젠 희망을 논하자

김 윤 하
전남대병원 홍보실장·교수

기다리지 않아도 어쩔 수 없어 유난히도 추웠던 겨울이 가고 따뜻한 봄바람이 개나리를 피우고 있다. 노오란 꽃망울이 힘들었던 나날을 용케 견디어내고 희망의 기지개를 켠다. 그래서 이 지역을 기반으로 했던 정당 심볼이 노란색이었는지도 모르겠다.

봄은 사랑의 계절이라 했던가. 처녀의 치맛자락에 온기를 불어 넣고 얼어붙었던 개울가, 둘레길, 산골 그루터기와 저 넓은 평야에도 생기가 넘치게 될 것이다. 풍요로운 땅 호남. 하지만 요즈음 좀처럼 흥이 나지 않는 모양이다.

광주일보는 작년 창립 60주년 기념행사를 치른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당당하고 중추적인 언론매체이다. 요즈음 인터넷을 이용한 온라인 매체 발달이 급진적으로 이루어졌지만 신문은 오랜 기간 동안 익숙한 인쇄된 형태로 신뢰성을 갖고 특징적 표제가 있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특히 광주일보가 지역에서 차지하고 있는 중요성에 대해서는 논의할 가치도 없을 것이다. 전남대병원 홍보실에는 중앙지·지방지 등 하루에 20여 개가 넘는 신문이 배달되어 온다. 그 중 광주일보는 쉽게 찾을 수 있어 먼저 읽어보는 편이다. 정치·경제·사회·문화·체육 등 모든 면의 큰 제목을 읽으면서 그날의 논조를 감지한다. 특히 교육과 건강·의료 등 기획면에서는 우리 병원과 관련된 기사를 찾고, 긍정적 내용인지 부정적 내용인지를 검토하고 분석한다.

신문의 보도기능 중 사회 구성원의 상당수가 특정 화제에 대한 의견·태도·신념 등 총체적인 여론을 형성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일이다. 어떤 사실에 대해 잘못된 점을 지적하며 부정적으로 말하거나, 좋고 훌륭한 점을 높이 평가하여 긍정적으로 표현하거나, 또는 앞일에 대해 좋은 결과를 기대하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만들 수 있다.

요즈음 대부분 언론이 칭찬과 비판기사를 적절히 배분하며 제작하고 있다. 하지만 유독 비판에만 집중하는 신문이 있다. 정부 정책, 사회·경제적 상황, 대북 상황 등 무엇이 그리 불만인지 모르겠다. 물론 한 때 암울한 군사정권시절에는 힘없는 민주시민의 울분을 대신 풀어주는 것 같아 열심히 응원하고 애독했었지만 비판이 전부는 아닌 것 같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속담이 있다. 남이 잘되는 것을 시기하거나 질투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이제는 아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박수를 쳐줘야 한다. 사촌 아니 친구, 형과 동생이 잘 돼야 하다 못해 쌀 한 가마니라도 나눠먹을 수가 있다. 사회생활 하면서 매일 남을 비방 하고 자기 혼자 옳다고 우기는 '만년야당'의 부정적인 사람은 죽을 때 까지 배만 아플 것이다. 불만과 부정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소통이 답이다.

일찍이 맹자는 '인간의 타고난 본성은 선하지만 나쁜 환경이나 그릇된 욕망 때문에 악하게 된다'고 성선설(性善說)을 주장했지만, 순자는 '인간의 타고난 본성을 악으로 보고, 도덕적 수양은 교육을 통한 후천적 습득에 의해서만 가능하다'고 성악설(性惡說)을 제시했다. 어느 이론이 올바른 지는 독자의 선택에 맡기지만 요즈음 같이 흉폭한 사건들이 많아지는 것은 후자가 옳은 것을 대변하는 것 같다. 모든 언론을 동원한 적극적인 인성교육과 명확한 법질서 확립에 의한 준법정신 각인, 사회구성원 모든 분들이 올바른 생각과 행동의 기본을 보이며 가르침과 일깨움을 쉬지 않고 계속해야 한다.

호남의 특징을 '풍전세류'(風前細柳)라 평하기도 한다. 바람 앞에 흔들리는 버드나무처럼 사람들이 부드럽고 멋스러우며 풍류를 즐길 줄 안다는 뜻으로 정감 있고 다정한 착한 이웃들을 일컫는다. 하지만 정치적 불순한 이용으로 기회주의적이며 비겁한 사람들이라는 지역폄하적인 의미로도 쓰이게 된다. 그러나 세태의 흐름에 몸을 굽히지 않고 당당하게 분노할 줄 알며, 자기주장이 뚜렷한 반면 어떤 사안에 부딪히면 단결하고 강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호남인이다. 광주민주화운동이 이를 증명했고 지난날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를 책임졌던 긍지를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풍성했던 금남로와 충장로는 깊은 경제적 고충으로 한숨소리에 파묻힌 지 오래고, 정치적으로 비약을 꿈꿨던 정객들의 희망은 훨훨 날아갔다. 대통합의 기치를 표방한 새로운 정부는 좋은 땅을 산 이웃이다. 이웃과 친구가 되어 같이 강건하고 풍요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해야 한다. 긍정적이고 밝고 고운 뉴스가 앞으로 지면을 가득 채웠으면 한다. 하지만 부정에 대해서는 엄격하고 서릿발 같은 비판을 해야 한다. 잘되는 호남을 위해 광주일보에 칭찬과 희망찬 소식이 넘쳐났으면 좋겠다.

은펜칼럼

의약분업과 선택분업

심 상 돈
동아병원장

올해로 의약분업이 실시된 지 12년째이다. 의약분업 제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이 있었지만 의약분업이 실시된 뒤 의약품 오남용의 감소와 국민의 의약품에 대한 알 수 있는 권리가 많이 늘었다는 긍정적인 평가와 국민들의 의약 서비스 이용에 대한 불편감 증가와 사회적 비용 및 의료소비자의 경제적 부담이 증가한 부정적인 평가가 있다.

의약분업은 1994년과 1996년에 보건복지부장관의 자문기구인 '의료보장 개혁위원회'와 국무총리 자문기구인 '의료개혁위원회'에서 '외래환자에 대하여 처방전 발행을 의무화하되 약 조제의 선택권은 국민에게 주어져야 한다'는 직능분업의 원칙으로 준비를 시작하였다. 그 후 보건복지부는 1998년 구성된 '의약분업추진 협의회'를 통해 '의사와 약사의 직능분업을 전제로 국민의 부담과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의약분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그 주요 내용으로는 의료법에 '모든 의료기관은 외래 환자에 대한 원외처방전 발행을 의무화 하고, 입원환자를 위한 약을 조제하는 조제실이 있어야 하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경우는 병원 내외의 약국 모두에서 통용할 수 있는 양식으로 처방전을 발행하여 약을 조제하는 장소의 선택권을 의료소비자에게 일임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런 방법으로 의약분업이 시행 될 경우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서는 진료와 처방 및 조제가 병원 내에서 모두 해결되는 편의성으로 환자가 의원급의 의료기관보다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을 선호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그 당시 환자의 대형병원으로의 편중을 막기 위해 추진중이었던 동네의원, 병원, 종합병원 및 대학병원으로 구성된 1차, 2차, 3차 의료기관간의 의료전달체계가 왜곡될 것이라는 의료계의 주장과 모든 의료기관 내에서의 외래환자의 약 조제를 금지하는 약사회의 주장이 있었다. 일부 시민단체 주도의 이해 조정이 있었고 1999년 5월 10일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가 시민단체의 의약분업 조정안에 합의 후 의사의 처방전에 의해서만 조제, 일반의약품만 임의판매 가능, 병원에서 약 조제는 불허(입원환자, 응급환자, 정신질환자 예외)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약사법이 1999년 12월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2000년 7월 개정 약사법에 근거하여 의약분업이 실시되었다.

의사회 및 시민단체에서는 그동안 시행되어온 의약분업의 긍정적인 부분은 더 강화하고 부정적인 부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수정 보완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있다. 주요 내용은 선택분업으로의 전환이다. 지금은 불가능한 병원 내의 약국에서 외래환자의 약 조제 및 판매를 가능하도록 하여, 병원 밖의 약국에서만 약을 구입하도록 되어 있는 지금의 의약분업을 의료소비자가 처방된 약을 조제 및 구입할 약국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하는 형태로 전환하자는 것이다.

이는 의약서비스 이용에 편이성 증가와 병원 내외 약국 간의 경쟁을 통한 환자서비스 개선 및 의약분업 후 지금까지 계속 증가해 온 약제비와 같은 사회적 비용의 절감을 유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대한의사회 차원의 자정선언과 같은 노력 및 약 거래를 통한 이윤창출을 법적으로 불허한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 등 여러 제도들이 잘 유지되고 있고 시민사회의식이 성장하여 의약품거래의 투명성은 이미 확보되었다고 본다.

의약분업 제도 도입 시 병원 약국의 폐쇄는 의약분업의 조기 정착에 어느 정도 역할을 하였으나 의료소비자의 편익을 무시한 조치였다.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다고 다 풀고 다시 채우자는 것이 아니다. 장점의 유지 지속 및 단점의 보완이다. 병원 밖의 약사가 조제한 약과 병원 안의 약사가 조제한 약에 큰 차이는 없지 않을까?

은펜칼럼은 오피니언 기고 최우수작 수상자의 모임인 '은펜클럽' 회원들의 칼럼을 싣는 코너입니다.

◇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社 說

새 정부, 지역 공약 경제성 논리 벗어나야

박근혜 대통령의 광주·전남 SOC(사회간접자본) 관련 대선공약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대통령직 인수위가 최근 SOC 분야 대선공약에 대해 사업 타당성 조사를 거쳐 추진한다는 입장을 정리해 종전처럼 경제성을 이유로 지역 공약들이 배제될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26일 인수위에 활동했던 관계자에 따르면 새 정부는 지역 공약들에 대해 기본적으로 모두 추진한다는 게 원칙이다. 하지만, SOC 공약은 절차상 사업 타당성 조사를 거쳐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

박 대통령은 광주지역 공약으로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조성, 남해안 철도 고속화사업, 광주 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 등 7개 사업을 제시했다. 전남에도 호남 KTX(송정~목포) 건설사업, 우주항공 체험관광명소 구축, 전남~경남 한려대교 건설 등 7개 사업을 공약했다.

이들 공약은 모두 대규모 국비가 투입돼야 하는 국책사업이다. 문제는 정부가 경제성, 사업성 등을 우선시할 경우 여타 지역에 비해 낙후해 있는 이 지역의 사업 대부분이 타당성 조사의 '문턱'을 넘기 힘들다는 점이다. 과거 정부에서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착공을 미루며, 완공 연도를 엿가락 늘리듯 한 호남고속철이나 서해안고속도로사업은 이의 방증인 셈이다.

타당성 조사에서 상당수 공약이 사업성 부족으로 결론날 경우 호남은 또다시 소외될 수밖에 없다. 광주시와 전남도가 대통령의 의지가 중요한데 사업성을 따진다는 것은 약속을 지키지 않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우려를 표명하는 이유다.

대선공약은 광주·전남과 같은 낙후지역을 배려하기 위해 내놓은 지역민과의 약속이다. 박 대통령은 지역 관련 사업에 대해 타당성 조사 결과와 관계없이 정책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그래야만 진정 '호남의 눈물'을 닦아주는 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논·밭두렁 소각 화재 하루에 35건이라니

광주·전남지역에서 25일 하루 동안 논·밭두렁 소각으로 빚어진 산불 관련 신고 건수가 35건에 달한다고 한다. 올해 들어 70건이 넘는다고 하니 산불이 많이 발생하는 봄철을 앞두고 걱정이 아닐 수 없다. 특히 건조주의보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자칫 대형 산불로 번지거나 인명 피해도 우려되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5일 오후 3시30분께 화순군 한천면 한 야산에서 인근 마을 주민이 논두렁서 소각 작업을 하다 불길이 옮겨 붙어 편백나무 700여 그루 등 0.5ha가 피해를 입었다. 또, 오후 1시20분께 영암군 서호면 야산에서 주민이 쓰레기를 태우다 불이 번져 산림 0.3ha가 소실됐다.

지난 17일 오전 6시55분께는 무등산 새인봉 인근에서 등산객의 담뱃불로 인한 화재가 발생해 소나무 등 0.5ha를 태우고 2시간여 만에 진화됐다. 무등산은 국립공원 승격 후 등산객이 크게 늘어 상시 화재위험에 노출돼 있었으나 산불감시인이 바로 발견하지 못하는 등 대비에 소홀했다는 지적이다.

산불은 사람의 실수에 의한 인재(人災)가 대부분이다. 산불 원인이 입산자 실화 42.0%, 논·밭두렁 소각 18%, 담뱃불 실화 10% 등을 보더라도 조금만 주의를 기울인다면 막을 수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 등산객이 라이터나 인화물질을 가져가지 않고, 취사행위를 하지 않는 기본 인식이 중요하다. 특히, 논·밭두렁 소각은 병해충을 없애겠다는 인식에서 출발하나 오히려 농사에 이로운 곤충까지 전부 없애게 돼 역효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정부와 지자체 역시 산불 예방 홍보와 감시체제를 강화해야 한다. 산불로 인해 해마다 서울 여의도 면적의 20배가 넘는 산림이 잿더미로 변하고, 생태계가 복구되는데 30~40년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산불 예방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無 等 鼓

승부조작과 배려

이달 초 유럽 공동 경찰기구인 유로폴이 전세계 30개국에서 치러진 680개 축구경기에서 조직적인 승부조작이 있었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전세계 축구계가 충격에 휩싸였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몇몇 스포츠 종목에서 승부조작이 드러났지만, 별다른 스포츠 이벤트가 없었던 왕조시절에도 일종의 승부조작이 있었다는 사실이 문헌에 전해져 내려와 관심을 끈다.

조선 최고의 국수로 꼽히는 정운창과 역시 당대의 고수였던 김종귀가 주인공인데, 순조시대 우의정을 지낸 이서구가 지은 기객소전(棋客小傳)에 자세히 나와 있다.

보성 출신으로 십 년 공부 끝에 한양에 올라가 '내로라'하는 고수들을 단숨에 무찌른 정운창이 곧바로 평양으로 진격, 당시 바둑의 최고봉이었던 김종귀와 맞대결을 펼쳐 압도적인 승리를 거둔 일화는 드라마로도 방영됐을 만큼 유명하다. 하지만, 한 번 패한 뒤 평생 2인자로 지내야만 했던 김종귀가 잃어버린 명예와 부를 되찾기 위해 1인자와 타협을 시도한 이야기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

함박눈이 내린 어느 날 김종귀는 정운창을 집에 초청, 직접 고기를 썰고 술을 대접하며 조심스레 이야기를 꺼낸다. "한 번 선생에게 패한 뒤 많은 고관·대작들이 오직 선생만을 추대하게 됐습니다. 제가 어찌 감히 선생과 대적하려 하겠습니까만, 바라건대 조금만 양보해 주셔서 예전의 명성을 조금만이라도 유지하게 해주십시오."

정운창은 곧바로 "좋습니다." 하고 허락한 뒤 밤새 즐겁게 술을 마시고 헤어졌다. 그로부터 정운창은 김종귀와 대국을 피하거나 일부러 실수를 하는 방식으로 약속을 지킨다. 살아남기 위해 선처를 부탁해야 하는 비감한 심정, 그리고 같은 길을 걸어가는 동료의 자긍심을 지켜주려는 배려가 영화의 한 장면처럼 가슴에 다가온다.

승부가 있는 곳이면 어디나 조작의 유혹이 존재한다. 하지만, 거액이 오가는 오늘날의 승부에는 배려가 끼어들 틈이 없는 것 같아 아쉽다.

/홍행기 사회1팀장 redplane@kwangju.co.kr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논설주간 申港樂 편집국장 奇賢鎬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경제부	2200-663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대표 FAX	222-4918〉	문화생활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편집부	2200-649	여론매체부	2200-621	광고마케팅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정치부	2200-612	체육부	2200-697	〈FAX	227-9500〉	〈FAX	227-9500〉
〈대표 FAX	222-4918〉	사진부	2200-693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사회부	2200-616	조사부	2200-571	프로젝트팀	2200-555	〈FAX	02-773-9335〉
〈대표 FAX	222-4267〉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